

國 土 密 飼

신정일칼럼

辛 正 一
(유일농원영업부장)

● 鷄國密度

최근 발표된 당국의 양계진흥 대책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 1,500 \$가 되는 1981년도의 계산물소비를 연간 국민 1인당 계란 167개, 닭고기 3.4kg으로 추정하였다. (표1참조) 1977년 현재 계란 97개, 계육 1.95kg에 비하면 모두 약 1.7배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먹어치우는 1981년도의 계란은 총 6억 5천만개, 닭고기는 약 13만톤으로서,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막연히 축산물소비가 증대될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 놀라운 증가물량의 감각을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고 있다.

닭고기의 정육율을 50%로 인정하고, 1수당 평균소비체중을 1.5kg로 계산할 때 133,000톤의 계육은 약 17700만수의 닭으로 환산된다. 올해 77년도의 年間 총소비닭수수를 약 9,000만수로 추정하면 81년도의 소비물량은 거의 2배가 되는 셈이다.

表 1. 계육과 계란의 수급 및 증식계획

년도별	총인구	계 육 계 란				사양수수
		1인당g	총수요(톤)	1인당(개)	총수요(개)	
1976	3,590만	1.70	60,900	85	3억만	2,600만수
1977	3,640만	1.95	71,200	97	3억5,000만	2,850만수
1978	3,700만	2.25	83,100	111	4억1,000만	3,220만수
1979	3,760만	2.58	97,100	127	4억8,000만	3,660만수
1980	3,820만	2.97	113,400	146	5억6,000만	4,080만수
1981	3,880만	3.42	132,500	167	6억5,000만	4,600만수

※ 자료 : 농수산부 양계진흥대책

×

×

×

인구밀도라고 할 때의 “입구(口)”字와 계구밀도라고 할 때의 “입구(口)”字는 강조되는 암시적인 해석상 조금은 그 뜻이 다르다.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항상 생존을 위한 식량이므로 인구밀도에 있어서 “입구(口)”字의 뜻은 “먹는 입”으로 해석하고, 닭에

대한 사항으로서 밀도는 환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계구밀도의 “입구(口)”字는 “호흡하는 입”으로 그 뜻을 풀이한다. (필자주) 농수산부의 양계진흥 대책에 나타난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계산물소비 증대는 양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희망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사양수수의 증가는 방역대책에 적신호를 던져주고, 생산성 제고에 위험부담이 가중된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국민전체가 먹어야 할 계육과 계란은 매년 증산되어야 하므로 사양수수의 절대량도 계속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계구밀도도 동시에 높아진다. 높은 인구밀도는 식량대책이 수립실천되어야 하지만 높은 계구밀도는 사료의 조달보다 오히려 방역대책에 더욱 힘써야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도의 우리나라 계구밀도는 465수로 증가한다. 80年代 이후 국민소득증가와 비례하여 닭의 사양수수가 많아질 때 우리나라의 계구밀도는 1,000수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계구밀도는 각국 국민의 식품기호성에 따라 관계가 많겠지만 소득증가와 연관된 계산물 섭취상한선이 일정하다고 할 때 궁극적인 결과는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즉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계구밀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구밀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77년도 현재 사양수수 2,800만수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계구밀도가 1,000수가 되는 80년대 중반기의 사양수수 1억 만수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가?

국민개인소득증가에 따른 계산물소비증대의 희망과 더불어 우리는 국토밀사의 환경오염와종 속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表 2. 인구밀도와 계구밀도

국별	면적 (km^2)	인구	인구밀도	닭 사 양 수 수	계 구 밀 도	비 고
미국	9,363,000	2억400만	22명	(년간계란총생산) 약 600억마개	(년간계육총생산) 약 550만톤	
일본	368,400	1억600만	288명	(년간계란총생산) 약 300억마개	(년간계육총생산) 약 90만톤	
한국	98,800	3,150만	319명	2,600만수	263수 (465수)	

2. 우리나라 계구밀도는 76년도 기준(비교란의 계구밀도는 81년도 기준)

3. 미국과 일본의 계구밀도는 사양수수의 자료근거가 불확실 하여 산출치 아니함. 단 계란과 계육의 총생산량(FAO77년 자료)을 표시

하였으므로 현재 우리나라 총 생산수량과 비교분석 할 수 있음.

◎ 생산성 제고와 환경위생

76년도 10월부터 터지기 시작한 호흡기질병은 주기적인 발생상황이라는 공식적인 해석이상으로 국토밀사의 전조인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 질병의 강세때문이다.

호흡기질병의 맹위와 소비증가 현상의 일환으로 나타난 계절소비의 균등경향은 양계인들에게 입추기준을 다르게 재인식토록 하고 있다. 재래의 입추기준은 항상 생산물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따라 시기와 수량을 설정하였으나 이제 앞으로의 입추는 질병억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육계나 산란계를 막론하고 국토밀사 속에서의 이러한 입추기준경향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명한 처사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 양계산업 성공의 열쇠는 시세예상을 잘 판단함에 있었으나 계속 높아지는 계구밀도와 더불어 국토밀사의 환경속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길은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나의 양계장 주변에 점점 양계장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닭의 꼬꼬댁 거리는 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속에서 어떻게하면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생산성 제고의 길은 어떠한 것일까?

닭의 사육밀도가 높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과 생산효율저하는 약품으로 치유되기가 힘들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결과는 환경위생의 철저가 근본대책의 방법이며 약품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경영관리상의 제문제들이다.

공동방역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구밀도가 높아 항상 질병의 위험속에 양계를 하고 있지만 식견있는 양계인들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서 충분히 그들의 양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고 믿고 있다.

其 1. 환경위생

식견있는 양계인들은 그들의 양계장에 대한 청소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항상 깨끗함을 유지시키고 있다. 계사내부의 먼지, 오물, 계분찌꺼기 등에서부터 계사전물의 청결과 농장내의 로면정지작업, 울타리, 변소, 창고 각종기구등에 대한 손질, 농장구석구석을 깨끗이 한다.

그들은 농장안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게 하고 흔히 날려다니는 닭털과 닭똥덩어리를 한톨도 없게 하며 계란의 찌꺼기, 깨어진 계란의 말라붙은 난황등을 깨끗이 없게 한다. 그들의 양계장에 들어서면

대문에서부터 청결과 정돈의 느낌을 한눈으로 뛸 수 있게 환경위생에 최대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其 2. 합리적인 경영

식견있는 양계인들은 그들의 입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 입주의 시기는 계사의 준비에 항상 맞추며 수용능력에 포화되지 않게 수량을 택한다. 오래된 계사일수록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기간을 두며 농장전체의 휴식계획을 적절하게 반드시 실시한다. 그들은 양계의 가장 완전한 경영방법인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 체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其 3. 소독

방역에는 소비성 방역과 생산성 방역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항생제나 영양제를 사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소비성 방역이며, 소독과 세척과 차단을 방법으로 하는 방역은 생산성방역이 된다. 효과와 경비의 양쪽면 모두 생산성방역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식견있는 양계인들은 깊이 알고있다. 소독은 또한 화학적 소독과 물리적 소독이 있으며 그들은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소독을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광의의 소독 범주에 속하는 세척과 차단과 청소와 소각등의 물리적 소독을 더욱 중요시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10만마리의 세균이 있는 계사속에서 성장하는 닭은 천마리의 세균속에서 성장하는 닭보다 더욱 많은 소비성 방역비를 요구한다. 식견있는 양계인들은 세균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는 소독은 바로 영양제와 항생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첨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양계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 열거된 평범한 세가지 사항은 높아져 가고 있는 계구밀도속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훌륭한 경계경영방침인 것이다.

슬기있는 양계인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함과 동시에 꾸준히 실천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실천되지 아니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아는 것만이 힘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구자춘 서울특별시장.